

광주계림교회, 부활절 헌금으로 소외이웃 180가구에 생필품

광주계림교회(담임목사 최요한)가 부활절을 맞아 지역 주민과 어려운 이웃에게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광주계림교회는 부활절주일(12일)에 모은 헌금으로 최근 동구 계림1동, 산수1동, 산수2동 지역 주민과 어려운 이웃(차상위계층)에게 코로나19 지원 물품(반찬, 간식, 라면 등) 180상자를 각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180가구에 전달했다.

광주계림교회는 지난 2일에도 동구 계림2동 관내 지역 주민과 어려운 이웃(차상위계층)에게 코로나19 지원 물품(반찬, 간식, 라면 등) 100상자를 계림2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100가구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교회 1층 비전홀에서 꿈나무장학회 장학금 수여식도 개최했다.



꿈나무장학회는 계림동 지역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취지로, 주민센터를 통해 학생들을 추천받아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롯데아울렛 수완점, 광산구장애인복지관에 '코로나 극복세트'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점장 이충열)은 지난 17일 광산구장애인복지관에 즉석밥·라면·후지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극복 세트'를 전달했다. <롯데아울렛 수완점 제공>

한국도로공사 '코로나 피해 농가 돕기' 소외이웃에 농산물 꾸러미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주성)가 최근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100박스(300만원 상당)'를 구입하고 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척이 미뤄지자 급식 납품이 줄어들어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돕고자 구입했다. 구입한 농산물을 꾸러미는 담양군 복지재단에 기부, 저소득 노인 등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서구, 장애인의 날 맞이 소외이웃에 면 마스크·천연비누



광주 서구가 20일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면마스크 4000장(성인용·아동용 각 2000장)과 천연비누 1000개를 장애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마스크는 광주클로버 봉사단 및 청각장애인 자원봉사자, 상무2동 자원봉사단, 아모레퍼시픽 광주지역사업부 등에서 제작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배워야 한다’ 어머니 바람 평생의恨 내 고향 후배들 설움없이 공부했으면”

구두 수선으로 30년간 모은 12억 전남대에 기부한 서울 김병양 어르신

장성서 초등학교 졸업 후 광주서 직공생활 하다 상경해 명동에 등지 A/S 전문점 운영 직원 25명 거느리기도...“늦기 전에 좋은 일 하고 싶어”

구두수선공으로 30여 년 동안 모은 12억 원을 고향의 대학에 기부한 80대 서울 할아버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에 사는 김병양(84) 할아버지는 지난 17일 자신이 평생 모아온 현금 6억 원을 전남대 디지털도서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했다. 또 조만간 거주 중인 시가 6억 원 상당의 연립주택도 현물 기부하기로 했다.

김 할아버지는 장성 출신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광주에서 직공생활을 하다 30대에 상경해 남대문시장에서 배달기사 등을 했다. 이후 52세의 늦은 나이에 서울 명동거리에서 구두수선공으로 일하며 30여 년 동안 돈을 모아왔다.

이날 기부식에 참석한 김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중학교 입학시험보라고 그렇게 권했었는데...”라며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는 말을 입에 올리자마자 금세 눈시울을 붉혔다. ‘사람은 항상 배워야 한다’는 어머니의 바람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 밖에 못 나온 자신을 원망해 온 김 할아버지는 약삭같이 벌여 모은 현금과 주택 등을 전남대에 기부했다.

장성에서 나고 자란 김 할아버지는 중학교를 가는 대신 작공이 되는 길을 택했다. “전남대학교(전신 도립농과대학 추정) 정문 앞 신안동에 있던 식용유 제조공장을 다녔어요. 전남대에도 수시로 드나들며 놀고 했었지요. 그 당시엔 빨간 벽돌공장도 있었고... 주변은 온통 논밭이었었는데... 이제는 많이

변했지요?” 김 할아버지는 1969년 즈음에 상경해 식용유, 열을 등을 배달하면서 명동과 인연을 맺었다. “남대문시장에서 짐반이 자전거에 물건을 가득 싣고 명동 한복판을 배달했지요. 열심히 일한 덕에 돈도 제법 모았어요.”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1988년), 배달일로 명동을 드나들던 것을 계기로 어쩌다 구두수선가게를 인수했다. 나이 씩이 넘어서 구두수선공이 된 것이다. ‘명동 코스모스백화점 앞 귀뚜이에 자리한 하교방(판잣집)이었는데, 일이 많았어요. 뽀족구두며 핸드백은 물론이고 가방, 구두를 수선해 달라는 남자 손님들도 많았지요.’ 꼼꼼하고 정성어린 솜씨에다 서울 멋쟁이들이 죄다 몰려들었던 명동거리다 보니 그럴 만도 했다.

그렇게 30년을 넘게 구두수선공으로 일했다. 한 때는 직원이 25명까지 늘었다. 유명 명품판매점이며, 백화점, 심지어 대기업들조차 김 할아버지를 찾을 정도로 이르렀다. 이윽고 ‘수입명품 A/S전문점’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은 딸에게 물려줘 여전히 성업 중이다.

김 할아버지는 “죽기 전에 고향에서 제일 좋은 전남대학교와 그 학생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내와 자식들까지 선뜻 제 생각에 동의해 줘 마침내 그 뜻을 이루게 됐다”고 기부 배경을 밝힌



뒤, “많은 돈도 아닌데 학교에서 극진하게 예우해 주니 고맙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정병석 전남대 총장은 “어르신 고귀한 뜻과 기부금의 의미를 잘 살리겠다”며 “오직 학생들을 더 열심히 가르쳐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

욕심 비우고 보여준 달관... 할머니 6인방 두근두근 첫 시화집

장흥 원림마을 할머니들 ‘할매들은 사랑’ 출간

‘욕심 부릴 게 없다 / 곱방 죽을 거니까 / 새끼들 다 잘 사니까’

여든 둘이신 위금남 할머니는 ‘욕심’이라는 작품에서 삶의 의연함과 달관을 보여 준다.

가장 연세가 많으신 김남주 할머니는 ‘아흔이 되도록 살아도’에서 ‘사는 것이 여전히 기쁘다’고 고백한다. 김기순 할머니는 ‘내 친구, 고양이가 꿈동이에게 에서 밥 삶아 줄게 나 두고 죽지 마’라고 노년의 고독을 내비친다.

정점삼 할머니는 ‘참새들’에서 ‘보리를 따먹다 자신에게 들려 날아가는 참새’를 보며 미안함을 표현하고, ‘꽃게만도 못한 인간들’을 쓴 박연심 할머니는 “인생 못된 것들은 / ~ / 죽어버려라”고 시원한 한방을 날린다. 백남순 할머니는 ‘사랑’이란 작품에서 결혼 초 “9년 동안 5일 밖에 남편을 보지 못했다”며 “85년의 세월을 살아오고도 아직 사랑을 모른다”고 말한다.

사단법인 장흥문화공작소가 최근 장흥군 용산면 월림마을 할머니 6인방의 합동 시화집 ‘할매들은 사랑’



방’ (정한책방, 228쪽)을 출간했다. 인문활동가 황희영 씨가 기획·제작한 이 시화집에는 김기순(81), 김남주(91), 박연심(80), 백남순(85), 위금남(82), 정점삼(80) 할머니의 작품이 실려있다.

할머니들은 지난해 6개월 동안 ‘두근두근 내 생애 첫 시와 그림’ 프로그램에 참여해 시화집을 완성했다. 이 시화집에는 팔손을 넘기며 견뎌오신 할머니들의 삶의 무게가 녹진하게 우리나라다. 할머니들이 뽐내내는 전라도 사투리가 곧 시이다.

황희영 활동가는 “이 시화집은 태어나 처음으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할머니들이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생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표출했다”며 “할머니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할매들은 사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에 장흥문화공작소가 추진한 ‘두근두근 내 생애 첫 시와 그림’ 프로그램이 더해져 탄생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인사

◇동신대 ▲인학처장 안형순 ▲기획협력부처장 겸 대학혁신지원사업부장장 주진걸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최해규·최은씨의 차남 종욱군, 이경(대림종합건설 회장)·국춘희씨의 차녀 유현양=25일(토) 낮 12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

▲윤봉근(전 광주시의회 의장)·최영은(교사)씨 장남 자민군, 배동우(건설회사 대표)·박명숙씨의 삼녀 서영양=25일(토) 오후 5시 30분 광산구 수완동 드래프트웨딩 2층.

일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기정량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

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응급센터, 노인학대 신고=연계된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

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일용 품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아간보호 서비스 실시=월 ~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음안 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약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출덕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모집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자부모집, 한국차매매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 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던 개강, 광주대 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아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

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당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오권수씨 별세, 오진근·준철·세연·영아씨 부친상, 정기원씨 장인상=발인 21일(화) 오전 9시 서구 천지장례식장 101호 062-527-1000.